



보도자료

2025.5.27(화)

고상진 빛의혁명시민본부 행정지원팀장(010.3654.8525)

“대표 건설사사무직노동조합, 변화 주체로 나설 때”

- 대표건설사 사무직 노조 이재명 지지선언 -

대우건설노동조합 등 국내 대표 건설사들의 사무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대표건설사 사무직 노동조합연대’가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이번 선택은 정권을 바꾸고 건설업의 희망을 되찾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대외신인도 하락, 자재비 급등, 혼란스러운 부동산정책, 반복되는 구조조정, 이어지는 장기 고용불안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산업을 지탱하는 존재를 넘어 변화를 만드는 주체로서 나서야 할 때이며 건설산업의 위기와 노동자의 희생은 더는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지선언문은 “정권의 무능이 만들어낸 공급난, 민간투자의 정체, 청년의 건설업 외면, 불합리한 보상구조와 무대응의 고용정책까지 그 대가를 현장에서, 삶에서 감당해왔다”며 “다음 대통령이 건설산업의 구조적 대개혁, 건설업 사무직 노동자의 권리회복, 청년과 미래세대의 신뢰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지선언을 함께 한 김현정 빛의혁명시민본부 수석부분부장은 “사무직 건설 노동자들은 단지 설계도면 위의 숫자를 다루는 건설사무직 노동자들이 아니다”며 “산업의 위기 한가운데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내일의 비전을 동시에 짚어낸 기획자들의 지지선언을 감사하고, 무겁게 받아 들인다”고 말했다. /끝/

대표 건설사 사무직 노동조합연대 소속 노동조합 명단 : 대우건설노동조합, 현대엔지니어링노동조합, GS건설노동조합, 삼성E&A노동조합, SK에코엔지니어링노동조합, 현대아파트노동조합, 동부건설노동조합, 쌍용건설노동조합, HL디엔아이한라노동조합, HJ중공업노동조합, 경남기업노동조합, SM삼환기업노동조합(이상 12개)

*사진 첨부

